

국민의힘 “110-130석” vs 민주 “120-151석+ α”

마지막 주말 각당 전망치 분석...비례·경합지 성적 변수 막판 수도권·부울경 촉각...한강·낙동강벨트 대혼전 興 “지지층 결집” 반등 기대...민주, PK 호조 “과반 목표”

4·10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7일 여야가 내놓은 판세는 여전히 예측불허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254개 지역구 중 각각 55곳, 50곳에서 ‘경합’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 판세를 가르는 수도권·중원과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낙동강벨트’ 등 곳곳이 초집전 양상을 보인다는 게 양당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날 현재 각 당의 선거전략 단위 및 시·도당별 자체 판세분석, 최신 여론조사 추이 등을 종합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당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의석과 경합 지역의 선전 여하에 따라 110-130

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은 ‘이종섭 논란’ 등 각종 악재가 일단락되면서 수도권 접전지를 중심으로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탔다고 보고 있다. 승패는 막판 지지층 결집 여하에 달렸다는 게 당 선대위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공식적으로 ‘지역구 110석 우세’라는 판세 전망을 고수하고 있지만, 비례 의석과 경합지 성적에 더해 이번 총선에서 33곳을 우세로, 27곳을 경합으로 각각 판단했다. 수도권 선거를 목전에 두고도 가장 혼란이 심한 지역이다. 특히 서울은 승패의 운과이어는 정도 드러나기는 커녕 갈수록 접전 지역이 늘어나는 양상이다. 서울·인천·경기 전체 122곳 중 국민의힘은 26곳을 ‘경합’으로 분류했다. 민주당 시·도당이 파악한 경합 지역은 40곳이다. 서울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은 15곳, 민주당은 12곳 정도가 해당한다. 용산, 영등포, 동작, 중·성동, 강동갑 등 ‘한강벨트’로 묶이는 지역구가 상당수다. 가장 많은 의석(80개)이 걸린 경기는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흐름에 변동이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은 단 한 곳도 우세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2곳(동두천·양주·연천을, 여주·양평)을 경합 우세로, 7곳(성남 분당갑, 분당을, 이천, 안성, 평택갑, 평택을, 포천·가평)을 경합으로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33곳을 우세로, 27곳을 경합으로 각각 판단했다. 14석이 걸린 인천의 경우 국민의힘은 3곳(중구·강화·옹진, 동·미추홀을, 연수갑)을 우세로, 2곳(계양을, 연수을)을 경합으로 각각 재분류했다. 앞서 경합우세로 봤던 동·미추홀을과 연수갑을 우세로, 계양을과 연수을을 경합 열세에서 경합으로 전망을 각각 ‘상향 조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중구·강화·옹진을 제외한 13곳을 전부 우세권으로 분류하며 승기를 자신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계양을은 내부적으로 오차 범위 바깥의 우세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PK) 표심도 예단하기 어렵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심판

론’의 양극단 대결 구도가 심화하면서 경합 지역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부산·울산에서 지지율 호조를 분석하면서도 낙동강벨트를 중심으로 경남 지역은 좀처럼 안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PK 전체 40곳 중 13곳을 경합으로 분류했다. 민주당은 경남이 PK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역 지역구 3곳(김해갑·김해을·양산을)에 창원 진해, 창원 성산 등 5곳을 우세권으로 봤고, 거제와 양산갑도 접전으로 평가했다. 민주당은 부산에서도 우세권으로만 8곳을 꼽는 등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지난 총선 당시 성적표는 3석이었던. 역대 총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 온 충청권 역시 여러 지역이 혼전이다. 총 28개 의석이 걸린 충청에서 국민의힘은 13곳을 경합으로 봤다. 대전에서 민주당은 경합권 싸움 중인

중구를 제외하면 우세 또는 경합 우세를 전망했다. 세종을도 우세로 판단했다. 충남은 6곳(천안갑, 천안을, 천안병, 아산갑, 아산을, 당진)을 우세로 분류했고, 현재 여당 지역구 4곳을 포함해 논산·계룡·금산까지를 ‘경합’으로 봤다. 충북은 청주 전 지역과 증평·진천·음성까지 5곳을 우세 지역으로 분류했다. 여야 각각 뒷밭으로 분류되는 대구·경북과 호남·제주 등은 판세가 상당 부분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TK에서 경북 경산 1곳을 제외한 24곳을 우세로 꼽았고, 민주당은 호남 28곳과 제주 3곳 전 지역구에서 우세를 자신했다. 강원(8석)에서는 국민의힘은 6곳(강릉, 춘천·철원·화천·양구을,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원주갑, 홍천·횡성·영월·평창)을 우세권에 넣고, 민주당은 3곳(춘천·철원·화천·양구갑, 원주갑, 원주을)을 경합우세로 분류했다. /연합뉴스

여야, 고수위 ‘막말’ 상대 깎아내리기 열중

이재명 “충직하지 못한 ‘일꾼’은 쫓아내야” 한동훈 “민주당, 쓰레기 같은 성평등 의식”

4·10 총선을 사흘 앞둔 7일 여야는 고수위를 낚는 ‘막말’을 앞세우며 서로 상대방 깎아내리기에 열중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우리는 왕을 뽑은 게 아닙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유세 현장에서 “우리는 숭배할 우상을 뽑은 게 아니다. 우리는 통치할 지배자를 뽑은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충직하게 일할 일꾼을 뽑은 것”이라며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꾼들은 해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충직하지 못한 일꾼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해야 한다”며 “회초리를 들어서 안 되면 권력을 빼앗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행동하지 않고 말치하면

그들은 반드시 국민을 배신한다”며 “국민이 말한 권력으로 그들이 한 행위를 보시라. 그들은 우리 국민이 힘들어할 때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서민 지원 예산을 삭감했고, 그러면서도 소수 부자를 위해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지적했다. 또 “고속도로의 위치를 바꿔 자신들의 땅 투기에 도움이 되게 한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군사보호구역에 해제를 것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인의 땅 투기를 위해 한 것”이라며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 왼쪽)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 지지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 왼쪽)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 지지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총선 프리즘

문금주, 친환경농업 확대 정책 협약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 후보(고흥·보성·장흥·강진)는 지난 5일 장흥군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권영식 장흥친환경농업회장은 “도양이 심하게 훼손되는 고투입 농업으로 유지되는 우리 농업으로는 미래를 바라보기 힘들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이 전

국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최근 친환경농업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관련 예산도 삭감되는 등 뒷걸음질치고 있다. 문 후보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친환경농업 비중을 확대하고 친환경적 불제 단가 인상 등 제도 개선과 지원을 늘려 친환경농업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정 기자

안도걸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력”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 후보(광주 동남을)는 7일 “지난 5일 광주시 간호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간호법 제정, 시니어 간호사 확보 대책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간호사회는 이날 의료법과 분리된 간호법 제정으로 건강 안전망 구축, 간호사들의 불합법 진료 근절을 통한 환자 안전 위협 제로화, 초고령사회 대비 시니어 간호사 확보 정책 마련, ‘지역

통합간호센터’ 구축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보건의료문제의 경우 당사자들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 건강 보장이라는 대원칙에 입각해 모든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강 기자

김성환 “청년 스타트업 지원책 마련”

무소속 김성환 국회의원 후보(광주 동남을)는 7일 “동남을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폭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금까지 수많은 청년 지원 정책들이 시행됐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라며 “정책적으로 지원됐던 예산이 종료되면 참여했던 청년들이 해당 사업을 정리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박선강 기자

이어 그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인공 지능, 콘텐츠 등과 관련된 다양한 청년 스타트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더불어 도심지역 빈 점포에 대한 문제 해결과 청년 창업을 결합한 청년창업타운 조성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선강 기자

이개호 “친환경농업 가치 확산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 후보(담양·함평·영광·장성)는 7일 “전날 영광군 선거사무소에서 전남친환경농업협회와 함께 친환경농업 진흥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와 전남친환경농업협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친환경 직불금 확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인증 통합관리 제도 ▲공공비축 친환경벼 구매 가격

인상 ▲친환경 학교·공공급식비 국가 지원 ▲친환경농업 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사무장 제도 등 5개 정책과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시원 기자

정준호, 72시간 총력 유세 돌입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 후보(광주 북구갑)는 7일 “이날부터 9일 자정까지 72시간 총력 유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중간에는 관내 경로당과 복지관을 방문하고 야간에는 먹자골목 상가 투어와 2시간 편의점 등을 돌며 상가 주인과 야간 아르바이트생들을 만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또한 새벽에는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찾아 상인들을 만나고 새벽 첫차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청소 노동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정 후보는 “한 표라도 더 얻어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모든 주민을 만나고, 모든 골목을 누비겠다”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

여수산단 대기업 노조協 “조계원 지지”

여수국가산단 14개 대기업 노동조합 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 후보(여수을) 지지를 선언했다. 여수국가산단 대기업 14개 사업장 노동조합협의회와 조계원 후보는 지난 5일 선거사무실에서 ‘여수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사항은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산업 안전보건 환경 관리 및 친환경 산업단지 위한 노동조합·정

치권 지속 협의 ▲질식사고 대비 거점병원 지정 등이다. 이날 협약에는 DL 케미칼·한화솔루션·금호미시어·GS칼텍스·휴켄스·롯데케미칼 기초소재·금호폴리캠·남해화학·롯데케미칼 첨단소재·IG화학·금호미시어·KRCC 등 노동조합이 참여했다. /양시원 기자